

■ 장성군 남면 동태마을 주민들의 호소

“자식같은 21명 꼭 살아 돌아오길...”

전남의 한 시골마을 주민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15일째 납치 억류돼 있는 한국인 21명의 생환(生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장성군 남면 삼태리 동태마을 주민 100여명은 2일 오전 마을 어귀에 ‘인질로 붙잡힌 우리 아들·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주시 북구 오룡동과 인접해 있는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3번만 왕복할 정도로 인적이 드문 시골이다. 40대 후반부터 80대에 이르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65세를 훌쩍 넘는 고령자가 대다수다.

주민들은 그동안 15일째 언론을 통해 아프간 피랍 사태를 쫓 지켜왔다. 무더위를 피해 마을회관에 모일 때마다 피랍소식은 단연 화제거리였다. 내 가족의 일도 아니고 종교도 다르지만 낯선 타국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아들·딸들을 생각하니 모두 가슴이 아렸다. 특히 고(故) 배형규 목사에 이어 지난달 31일 심장마비까지 숨지자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죽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한 끝에 무사귀환을 바라는 현수막이라도 당장 붙이기로 뜻을 모았다. 한 명이라도 더 마음을 보태면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면서

고령자 100여 명 현수막 내걸고

아프간 인질 사태 해결 노심초사

저마다 아프간 사태 해결책을 내놓았다.

윤순옥(여·45)씨는 “군사작전은 인질이 살해당할 위험이 커 아주 위험하다”며 “포로를 교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풀려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49)씨는 “만약 미국이나 영국사람이 납치됐다면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됐을까 의문이 생긴다”며 “강대국의 힘의 논리 때문에 한국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은 절대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피랍자 21명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피랍자가 죽어갈수록 조급이냐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 온 국민이 한마음을 한 뜻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피랍자 생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마을이장 김연수(64)씨는 “기쁨은 함께하고 슬픔은 나누는 것이 마을의 전통”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모아 피랍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동태마을 주민들이 2일 아프간 피랍 한국인 21명의 무사귀환을 소망하는 현수막을 펼쳐두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현대삼호중 크레인 전복 사고

안전수칙 안 지켜 발생한 인재

영암 현대 삼호조선소 크레인 전복 사고는 크레인을 설치하면서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영암 경찰은 2일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설치 예정이었던 195t 타워 크레인과 이를 설치하려던 전복된 ‘지브(Jib)크레인’과의 거리가 멀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대의 크레인이 동원돼 무게 중심을 맞춰야 하는데 크레인 3대만을 이용해 작업을 벌인 것도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대 삼호중공업 관계자와 크레인 설치 도급업체인 S 크레인 책임자들을 불러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혈압조절 맘대로...軍 면제받아

인천서 9명 적발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혈압을 자유 자재로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한 뒤 임영 대상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유포한 오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오씨가 알려준 방법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12명에게 혈압을 평상시보다 높여 ‘본태성 고혈압’증세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알려주고 1인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가 전파한 수법은 신체 특정 부위에 힘을 쥐어 순간적으로 혈압을 평소보다 30~40 mmHg 가량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병원에서 혈압측정을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에게 돈을 주고 이 수법을 배운 12명 중 10명은 공익근무 판정을, 2명은 면제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2004년도 이후 고혈압으로 병역 면제 등을 받은 전국의 임영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형뉴스

중국산 장난감 또 납 검출

‘빅버드’ 등 83종

산자부, 판매중지

납 성분 함유 때문에 리콜에 들어간 ‘토머스와 친구들’에 이어 또 중국산 장난감 ‘피셔 프라이어스’장난감에서 과도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 완구업체 마텔 계열사인 피셔 프라이어스가 중국에서 제작해 공급한 빅버드, 엘모, 도라 등 캐릭터 장난감 83종

에 칠해진 페인트에서 과도한 납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도 대형 마트와 장난감 전문매장에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이들 제품은 광주·전남지역 완구점에서도 상당수 판매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모 장난감 백화점 관계자는 “피셔 프라이어스 제품은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으로서 10여종의 제품 100여개를 들여와 상당수가 팔렸는데, 리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중국인 23명 밀입국

여수해경 검거...예인선장 등 6명도

여수해경은 2일 철재 예인선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하려던 황모(39·중국 지린성)씨 등 조선족 2명과 손모(45·/)씨 등 중국인 23명(남자 21명·여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이들을 중국 해역에서 태워 국내로 이동시켜 준 예인선 선장 이모(57)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부산 선적 철재 예인선 288t급 ‘동방브라보호’에 탄 뒤 경남 거제로 밀항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동방브라보호’를 타고 국내 해역으로 들어온 뒤 해경의 눈을 피해 여수 지역에서 소형 선박으로 갈아타기 위해 대기하다 적발됐다.

해경 등은 지난 1일 밤 9시4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7.2km 해상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지난 2월 화재 참사로 불법 체류 외국인 27명이 죽거나 다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판의 증거로 보수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어서, 이들 중국인들은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전화금융 사기 30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6~7월 두 달간 특별단속을 한 결과 모두 22건의 관련 범죄를 적발하고 30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사기로 얻은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액·송금액이 5명 ▲범죄에 이용할 예금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은 10명 ▲계좌를 개설해 준 통장 명의인이 15명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염 고발” 금품 뜯은

사이비 기자 8명 적발

환경오염 현장고발 등을 빙자해 광고비나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 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환경오염 문제를 기사화 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A일보 광주본부장 겸 D환경신문 부회장 배모(60)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 2005년 11월께 나주시가 발주한 공원조성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사인 C건설로부터 이후 40여차례에 걸쳐 2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일보와 D환경신문 소속 기자 7명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이나 축사 등의 환경오염 실태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과 향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침 (7278) 김중두



80년 산삼보다 소중한 50년 우정



상나팔

○...지리산 등반 중 수천 만원 상당의 산삼 6뿌리를 발견한 50대 남성이 빗따미에 놓인 친구를 위해 ‘제 뒷’을 포기해 화제. ○...50년 친구인 정모(51·여수시)씨와 김모(51·여수시)씨는 2일 오전 11시께 지리산 해발 1천200m 지점에서 산삼 6뿌리를 캐내 한국전통삼마니협회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70~80년산이라는 감정을 받았는데. ○...정씨는 “전날 동, 서쪽 검은 하늘이 모두 열리더니 올 두 마리가 뒤엉켜 승천하는 꿈을 꿴다”면서도, “부도가 난 친구에게 내 뒷 3뿌리를 양보한다”며 진한 우정을 과시.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Large advertisement for 'Aozai International Marriage' (아오자이 국제결혼) featuring photos of couples, text about marriag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062)232-8966, 010-5256-8966).